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8월 4일(주일) 제1503호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예배.

“그 신앙과 믿음, 삶 본받겠습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기간 및 추모예배
〈요한복음〉 설교 영상 상영, 추모예배 30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 기간’을 보냈다. 그리운 하용조 목사를 기억하고 그리운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그분의 신앙과 믿음, 삶을 본받기로 다짐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7월 29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렸다. 이 기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故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설교 영상을 상영했다. 8월 2일(금)에는 Acts29비전발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 사회, 차준한 장로 대표기도, 박정규 성가사, 블러썸챔버 특송,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유가족 인사,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축매적 리더십’ (전 4:9~12)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용조 목사님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이 잇는 것을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이뤄가는 교회를 만드는 축매적 리더십을 발휘하셨다”면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본받아 아름다운 온누리교회를 세우기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유가족 대표 하유진 자매(故 하용조 목사 손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하다”면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범식 장로(중종로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은 늘 ‘제자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분”이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은경 권사(일산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을 떠올리면 평신도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셨던 사랑 많은 모습이 생각난다”면서 “하용조 목사님을 본받아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 여름캠프 8월 12일 마무리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고 있다. 2024 차세대 여름캠프가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은 8월 11일(일)까지 여름캠프를 하고,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지난 7월 21일(일) 여름캠프의 막을 내렸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8월 12일(월)까지 ‘獨對(독대)’를 주제로 여름캠프를 한다.

방학 동안 QT를 통해 차세대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는 8월 17일(토)까지 이어진다. 차세대 QT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더 힘차게! 더 뜨겁게!

여름 아웃리치, 해외 2,632명, 국내 5,573명

온누리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더 힘차게, 더 뜨겁게 여름 아웃리치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46개 팀 2,632명, 국내 229개 팀 5,573명이 참가한다(8월 2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네팔, 일본, 튀르키예, 스리랑카, 몽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선교지 방문, 선교사 위로, 어린이 사역, 시설 보수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농어촌교회와 M센터, 기관, 군부대 등지를 찾아가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노방전도, 군부대 위문 등을 하고 있다.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준호 형제(SNS청년부)는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함양과 거창, 산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윤주희 자매(S브릿지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신앙 여정에서 이토록 기억에 남는 기쁜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 기사 6면>

〈온누리신문〉과 미디어본부에서는 2024 여름 아웃리치의 생생한 은혜가 담긴 간증과 사진, 영상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QR참고.



유가족 인사

“할아버지 닳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달 후에 태어났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오랜 시간 할아버지를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할아버지의 얼굴이 큰 포스터에 실리고, 그분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으며,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모여 그분을 기억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은 학교에서 쓰는 에세이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매년 이 시기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오늘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할아버지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비록 그분이 제 곁에 안 계시지만, 매일 그분의 존재를 느낍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고, 조언이 필요할 때 찾는 분이며, 무엇보다 한 번만이라도 직접 안아보고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할아버지와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그날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요.

할아버지께서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점이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닳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처럼 목소리와 기도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뵈지 못한 저도 이렇게 큰 그리움을 느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그리움을 저는 상상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故 하용조 목사의 손녀 하유진

8월 비전헌금 사단법인 행가레운동본부 후원

8월 11~12일 봉헌하는 8월 비전헌금은 심각한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 ‘사단법인 행가레운동본부(이사장: 온누리교회 김선래 장로)’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사단법인 행가레운동본부는 2015년 4월 5일 발족된 ‘저출산대책포럼’을 시작으로 결혼 장려 및 행복한 가정 인식 조성 캠페인, 저출생 관련 조사 및 연구, 출생 정책 제안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7년 4월 30일 사무실이 문을 열었고, 2019년 1월 7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바울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 대륙에서 오늘날 유럽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첫 번째 사역을 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시민과 동일한 특권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당시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지역을 가든 먼저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강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전반부에서 빌립보에 있는 강가 기도처에서 바울 선교팀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 여인은 루디아입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옷감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입니다. 루디아는 바울 선교팀에게 마음을 열고 집에 초청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바울 선교팀의 중요한 후원자가 되고, 나아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여인은 귀신들린 여종 아이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쳐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여 주는 소녀였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 선교팀에게 “이 사람들은 자라히 높은 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종이 외친 ‘지라히 높은 신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시 이교도들이 믿던 제우스나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기에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여인입니다. 어린 여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가까이 하던 사람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떠나자 또 다른 저항 세력이 등장합니다. 귀신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더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억압과 고통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누리던 불의한 세력이 예수님의 권세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 두 가지 거짓으로 누명을 씁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무지한 편견을 이용한 거짓말입니다. ‘유대사람으로서’라는 말은 인종적인 편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진짜 이유는 귀신들린 소녀를 이용해 돈을 벌던 것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적인 편견, 자만심, 로마 제국에 대한 교만 등을 자극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도 누명을 쓰고, 로마로부터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세 가지 영역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의 영입니다. 둘째, 비양심적이고 비겁한 지도자들입니다. 셋째, 군중심리에 쉽게 넘어가는 무지한 대중들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 박히시게 된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한 이유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본디 빌라도의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심리에 쉽게 넘어가는 무지한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했습

니다(25~26절). 억울한 누명으로 심하게 매를 맞고 던져진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평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던 사람은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의지할 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평소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형편에 처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고소하고 때리고 가둔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찬송도 했습니다. 기도에서는 도움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이 실사 우리 인생을 여기서 끝나게 하실지라도,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 생활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상황이 변하는 기적 이전에 내 영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복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다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기만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갈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자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칩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려와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중요한 태도가 잘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 평소에는 가장 관심 없던 주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단지 믿으라고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을지를 전해줬습니다. 32절에서 ‘당신의 집안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가족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household)’이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감옥의 간수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사람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간수가 죄수들을 데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물로 자신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베푸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에 구원이 임하고, 빌립보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 갇힌 자는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들을 감옥에 넣은 이들입니다.

억울한 누명, 매질, 감옥이 결코 복음 증거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대반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 같은 일들이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전반부 두 여인 루디아와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종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었고,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고, 어린 여종은 아마 종으로 팔려온 헬라인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차이를 넘어서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능력 있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라면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옥 문을 열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때 나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로잔운동 기획시리즈 - 로잔의 오해와 진실

“로잔은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다!”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고신총회 입장 청원’에 대한 보고서

최근 일각에서 로잔대회가 WCC나 신사도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들을 제기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어느 노회의 한 목사도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고신총회에 속한 성도들이 제4차 로잔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고신총회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신총회는 아래와 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나누고자 한다.

/ 편집자 주

1. 청원의 이유와 근거

청원서는 로잔운동이 ‘자유주의자들과 로마가톨릭, 안식교,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은 이단들에 대해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혁주의를 따르는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며, 단순히 선교대회라고 볼 수 없는 신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4차 로잔대회에 고신총회에 속한 대학이나 교수, 선교 기관의 참여 금지를 결정해주시기를 청원했다. 로잔운동을 ‘이단들에 대한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운동’으로 판단한 근거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1차 로잔대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빌리 그레이엄과 칼 헨리는 로마가톨릭에 우호적인 ‘신복음주의자들’이었다.

2)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대회에 신사도운동가 피터 와그너, 제이 콕스, 조지 오스티, 루이스 부쉬, 조지 도우슨이 강사로 참여하며 지역 귀신론을 가르침으로 ‘신사도운동’이 시작되었다.

3)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에는 로마가톨릭, 정교회, WCC에서 1천 명이 초청돼 다원주의와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고,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

4) 인터콥의 홈페이지에 로잔 언약에 기초한 신앙고백을 표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터콥이 신사도운동을 수용한 것은 로잔운동에서 이단 사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청원서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

1) 로잔운동이 로마가톨릭과 WCC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인가?

청원서 1), 3)은 로잔운동이 가톨릭과 WCC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의 내용은 종신대 문병호 교수가 2021년 6월 8일 발표한 논문 ‘WEA 신복음주의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 비판: WCC에 편

승하여 로마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감’과 이언 머리(Iain Murray)가 쓴 책들을 인용하고 있다. 문병호 교수의 논문과 이언 머리의 책은 WEA에 의해 제1차 로잔대회(1974년)가 열렸고, WEA는 신복음주의로서 WCC와 로마가톨릭과 타협하여 복음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WEA는 신복음주의로서 WCC와 로마가톨릭과 타협하여 복음을 훼손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문병호 교수와 같은 종신대 김성태, 이한수, 박용규 교수가 ‘WEA와 교류 단절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길’(가리온, 2021)에서 문병호 교수의 이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제1차 로잔대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빌리 그레이엄과 칼 헨리가 로마가톨릭에 우호적이었던 ‘신복음주의자들’이었으므로 로잔운동이 로마가톨릭을 포용한다는 주장은 로잔 문서들에 그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해야 한다.

3)의 내용은 <교회연합신문> 2009년 6월 12일 기사와 <크리스천투데이> 2010년 11월 11일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근거해 로마가톨릭, 정교회, WCC 대표 1천 명이 초청되었다는 기사를 썼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그 수가 얼마이트 제3차 로잔대회에 로마가톨릭, WCC, 정교회 대표들이 참관인의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3차 로잔대회가 상호 교류 차원에서 로마가톨릭과 WCC 대표들을 참관인으로 초청한 것을 다원주의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다.

로잔운동은 WCC가 주창한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응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WCC의 신학과 선교적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로잔운동의 공식 문서인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 견해를 표방하며, 복음의 온전함과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한국 로잔 신학위원회도 로잔운동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2) 로잔운동은 인터콥과 신사도운동과 연관이 있는가?

청원서 2)와 4)는 로잔운동이 고신총회가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한 인터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로잔운동에서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에 신사도운동가 피터 와그너, 제이 콕스, 조지 오스티, 루이스 부쉬, 조지 도우슨이 강사로 참여하며 지역 귀신론을 가르침으로 신사도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터 와그너는 2004년 출판된 그의 책 <Changing Church>(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에서 1989년 제2차 로잔대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다섯 명이 ‘지역의 영들’을 주제로 강의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지역 귀신론을 강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터 와그너가 강의한 것을 근거로 로잔대회에서 신사도운동이 시작되고, 인터콥이 로잔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신사도운동을 수용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피터 와그너가 ‘지역의 영들’을 강의했다는 마닐라 대회의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문>과 마닐라 대회에서 다른 의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표된 <로잔 주제 보고서>(LOP)와 <케이프타운 서약> 그 어디에도 피터 와그너가 주장한 신사도운동을 다루거나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없다.

4)는 인터콥이 로잔운동의 영향을 받아 신사도운동을 수용했으며, 인터콥이 로잔 언약을 신앙고백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인터콥 홈페이지는 로잔 언약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인터콥이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단체와 관련된 이단 시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터콥이 로잔 언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근거로 로잔운동이 신사도운동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로잔운동은 전 세계적인 교회, 교파 연합체인 WEA나 WCC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운동(movement)으로 출발해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콥과 같은 어떤 단체들이 로잔 언약을 받아들인다고 표방하는 것을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 로잔대회가 ‘선교운동’이기에 동참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선교 운동을 펼쳐갈 수 있지만, 어떤 단체들이 로잔 언약을 오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다.

3. 결론

로잔운동의 역사가 반세기 가까이 되지만 지금까지 선교학자들과 일부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한국 교회에서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한국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게 되자 이 운동과 관련해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해 한 목사가 고신총회에 요청한 ‘로잔대회 참석 금지 청원’도 이러한 우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소한 로잔대회에 참가를 금지하도록 청원한 동기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청원으로 고신총회 내에서 로잔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로잔대회 참가 금지를 청원하며 제시한 문제들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원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고신총회가 총회에 속한 개인과 기관에 로잔대회에 참석을 금지하는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청원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로잔운동은 WCC에 대응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로잔운동의 이러한 성격은 어느 대회에서나 ‘복음-교회-세상’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로잔운동의 신학적 입장은 로잔 언약과 로잔대회 문서들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2. 따라서 로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이 운동의 공식 문서인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과 <로잔 주제보고서>(LOP)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3. 로잔운동은 전 세계적인 교파 연합체 조직인 WEA나 WCC와는 달리 상임 조직이 없는 ‘선교운동’이며, 지역 교회들이 협력해 선교를 논의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대회를 통해 로잔운동과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교회나 교파들에 속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 점을 근거로 로잔운동을 로마가톨릭, WCC 등과 같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4. 하지만 로잔대회에 참석한 일부의 개인들을 살펴보면 로잔 정신을 따르지 않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소수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피터 와그너와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터콥과 같은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이 자신들이 로잔 언약과 정신을 따르는 것처럼 위장해서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로잔대회와 단절해 여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건전한 교단 및 선교단체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따라서 로잔대회의 한계에 주의하면서 신앙고백이 같은 교회들과 교제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로잔운동의 흐름을 보면 복음의 총체성을 내세우면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고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에 참가하여 개혁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로잔운동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회복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로잔대회가 공식적으로 이전의 언약문서들을 심각하게 변경하거나 거부한다면 혹은 실제로 있어서 언약문서들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단호하게 교류나 참여를 금해야 할 것이다.

*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고신총회 입장 청원’에 대한 보고서 전문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QR 참고).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재훈 위임목사 신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가 나왔다. 온누리교회 맞춤전도집회 23년 역사를 함축한 책이다. 2001년 40대 남성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비상구(EXIT)’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7회 집회가 이어졌다. 그 수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열매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책은 전도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을 위한 메뉴얼이다. 다 음은 이재훈 위임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현준, 홍하영 기자

모든 영혼의 필요를 따라 복음 증거!

신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



이재훈 위임목사가 신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를 소개하고 있다.

신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맞춤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원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번의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신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에 담았습니다. 23년 역사의 온누리교회 맞춤전도집회 사명과 비전, 방법과 원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온누리교회 맞춤전도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한국 교회가 맞춤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한국 교회에 ‘맞춤전도집회’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맞춤전도집회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은 온누리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새가족이 급증했습니다. 새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를 출석하다가 옮겨 온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주일 새가족 교육 1주차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타 교회에서 온 성도가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교회가 되면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가 새가족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은 불신자들만 전도하는 사역을 맡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도사역본부’를 신설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사역본부를 신설하고 맞춤전도집회 기획과 사후 양육 등을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께 전도집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대적, 목회적 상황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고, 맞춤전도집회 장소를 레스토랑으로 변화시켜 소수만 초청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행해 보라고 하시며 지지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47번 맞춤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는 2001년 12월 열린 첫 번째 맞춤전도집회 40대 남성을 위한 ‘비상구(EXIT)’입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힌 집회도 그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40대 남성들 상당수가 IMF 외환위기로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었고, 자살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세대만 지정해서 집회를 연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맞춤전도집회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교회가 만지 않는 40대 남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배당을 레스토랑처럼 꾸민 시도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40대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메시지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중보기도자가 참여했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그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맞춤전도집회 메시지는 40대 남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750명을 초청했는데, 무려 530명이 결신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조차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맞춤전도 전략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는 반드시 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를 불신자들의 필요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세계관과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그 필요에 적합한 언어로 해석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전도 대상자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맞춤전도에서는 전도자와 메시지가 전도 대상자의 필요에 적합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문제를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메시지도 전도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 대상자들의 세계관과 문화, 현재 문제와 필요를 깊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전도 도구와 방법 또한 대상자의 필요에 부합해야 합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맞춤전도집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화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를 전도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SNS나 온라인을 이용한 전도 방법이 있지만, 결국 인격적 대면이 이뤄져야 하는 전도의 성격상 그들과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고,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초개인화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초개인화 문화에 맞춤화된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법부터 일대일 전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도 실행이 요구됩니다.

둘째, 타 종교와 세계관별 맞춤화된 메시지와 전도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에 집중하려면 타 종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 종교의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시대 세계관과 타 종교별 맞춤화된 메시지와 전도 철학을 개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춤전도는 많은 인원을 초청할 때보다 적은 인원일 때 효과적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맞춤전도를 실행하면서 적합한 모델들을 더 많이 만들면 한국 교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도 패러다임이 정착할 것입니다.”

신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는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듣는 대상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했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맞춤전도 원리는 언제나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맞춤 사역의 절정입니다. 맞춤전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영혼의 시대와 문화, 필요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전도>를 읽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엔젤트리’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

박중현 장로
(사회선교본부
엔젤트리팀)

사회선교란 구제 봉사나 공활사역의 개념을 넘어서는 일이다.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돌봐주며, 때로는 필요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뜻과 네 힘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계명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섬기고,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온전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엔젤트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마 18:3-4).

어린이든, 소외된 자든 간에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먼저는 겸손한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누군가 선물을 배풀거나 선물을 줄 때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받는다. 그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상대가 대가 없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선물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은 온전한 마음이다. 아이들의 마음은 쉽게 나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들은 한결같다. 다른 사람이 오라 해도 쉽게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안아줘도 그



를 보호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자신을 혼내고 꾸중해도 아이에게는 부모가 최고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때야 할까? 성도들 역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따라야 한다. 화장실 갈 때도, 유치원 갈 때도 아이가 엄마만 그리워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그리워하고 온전히 사모해야 한다.

아무리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던 아이라도 부모가 데리러 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모에게 달려 나온다.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데리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온전히 그 나라를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둘째, 천사같이 되어야 한다. 천사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서 그분이 주인공이 되도록 돕고자 하고 섬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히 1:14).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본인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으셨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걸음이다. 이것이 없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물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품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르지 못하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나오려고 한다. 이 욕망은 교묘하게 예수님보다 나를 보이게 만든다. 이

러한 사람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자주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이 욕망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스랍천사들은 본인들이 가진 6개의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모두 가리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구해야 한다. <이사야>의 스랍천사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고 외치며 나는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무처럼 생명의 열매를!

셋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되어야 한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마 12:33).

성경을 보면 과일에 대한 언급이 많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과일나무인 선악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의 성구에 살구나무 꽃문양을 새겨 놓기도 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나님이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그들을 가려주시기도 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노아가 포도주에 크게 취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이 큰 포도 열매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있다. 예루살렘에 임성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하셨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일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성경이 과일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생명 때문이며,



▲ 지난해 엔젤트리에 걸린 천사카드.
◀ 이웃에게 친구이자 천사가 되어주는 엔젤트리.

둘째는 열매 때문이다. 성경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는 2014년 시작되었다. 기본 방향은 <미가서> 6장 8절을 기초로 공의와 공활, 겸손을 추구한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에서 율법학자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웃하면 사회적인 지위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이들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모든 사람도 아니다.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사마리아인이 목숨을 걸고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연약한 이들의 삶에 희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 이웃이다.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의 엔젤트리는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 실천하는 행사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사랑의 선물 나누기 운동이다. 엔젤트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건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가 큰 사역이다. 엔젤트리하면 크리스마스트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에만 하는 행사보다 필요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한다. 일부 부서에서만 시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공활한 마음을 품는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교회 엔젤트리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며, 다른 지체에게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엔젤트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이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운동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엔젤트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문의: 02-3215-3434

SNS청년부
스리랑카

내가 스리랑카에 가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침묵하는 건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씁쓸한 진실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땅에 매고 살아가는 것이고(고후 6:14),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다.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가 있다.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SNS청년부 스리랑카 아웃리치에 헌신했다. 내가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스리랑카에 가게 된 이유가 있다. 나의 절친한 친구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부모님 공동체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10살 때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시간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태국 아웃리치를 갔다. 그 덕분에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연일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안다.

나를 스리랑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그때 내가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SNS청년부와 스리랑카 암파라 라두갈라교회 성도들.

요한 이유를 내 오래된 책장에서 찾았다. 10살 때 태국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쓴 일기였다.

“그곳에 지진과 해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중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 땅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이 내용은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 쓴 것임을

안다. 그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20년 전 만났던 복음이 또 한 번 내게 임했다.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8일 동안 무언가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했다. 아주 뜻밖의 장소와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신비롭고 놀라운 복음이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땅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곳의 이웃들이 내게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낳을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 그

곳에 갔는데, 복음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내가 스리랑카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곳에 있던 복음이 오히려 나를 환영해 주었다.

과거의 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두가 사도들처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암파라 라두갈라교회만큼 음정 없는 찬양을 드리고, 제대로 된 성경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무엇보다 가난하고, 별난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견해로 볼 때, 그 교회는 복음이 흘러넘치는 사도행전적 교회라 단언한다. 성령은 허상이 아닌 실상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시작이다. 느끼지 못할 뿐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 10살 때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또 한번 다짐한다. 나는 라두갈라교회에 또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그 땅에 있으니까.



이준호 형제
(SNS청년부)

온누리 전도학교
함양, 거창, 산청

아주 특별했던 ‘전도 여행’

온누리 전도학교 단체대화방에 아웃리치 모집 광고가 올라왔다. 평소 전도사역에 함께하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름에는 휴가를 쓸 수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아웃리치 일정에 휴가를 신청했다. 또래가 아닌 신앙과 인생의 연배가 있는 분들과의 전도 여행이 기대되었다. 다른 공동체, 다른 인생을 살아온 분들과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같이 경험하며 전도하는 모든 시간이 기다려졌다. 외국에서 잠깐 지낼 때 다닌 현지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나이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구성한 셀에서 경험한 좋은 기억이 있었다. 이번에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아웃리치를 가기도 전에 마음이 설렘.

전체 일정은 함양, 거창, 산청 각 지역 교회 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다국어로 번역된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전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시장에서 전도하기로 했다.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비가 온다던 기상 예보가 무색하게 아주 맑고 맑은 아침을 주셨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전도하는 동안에는 비를 맞지 않게 하셨다.

권사님들과 함께 탄 승합차는 이미 ‘이동하는 기도원’이었다. 출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찬양을 시작했다. 찬양 몇 곡을 부르고,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회는 이동하는 3일 내내 계속됐다. 화개 기도도 시작해서 전도사역과 나라, 로잔



온누리 전도학교 아웃리치팀이 어르신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대회를 위해 방언과 통성으로 기도하면 어느새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함양, 거창, 산청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둘러있는 지역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펼치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 특별 선물이었다. 자연 속에서 전도하며 지역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다.

아웃리치팀은 교회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명지를 들 때도 사람만 보이면 특공대처럼 전도 작전을 수행했다. 전도가 일상

이 된 이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계획대로 일정이 이뤄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 역사가 계속됐다. 전도지를 전달하려고 교회에 들렀다가 동네 주민이 보여 따라가 봤더니 공원이 나왔다. 10여 명의 어르신이 공공근로를 하고 계셨다.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시 들린 거창에서도 그 전달 복음을 듣지 못한 아주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전망을 보

기 위해 들린 산 정상에서 조정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교회에 가고 싶는데 차량이 없어 못 가시는 분도 계셨다. 아웃리치팀 권사님의 동생이 그곳에 연고가 있어서 매주 주일 차량 봉사를 해주도록 연결했다. 결과적으로 10명의 정도 사명자를 통해 72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5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열매를 보게 하셨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다. 단순히 전도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함양, 거창, 산청 지역에서 이미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열정 때문이다. 거창 지역 목사님은 교회에 제빵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나누고 계셨다.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교회 이름을 대면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빵 잘 먹고 있다는 인사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성령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전도 여행을 나의 신앙 여정에 기쁜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전도학교 장로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하다. 교회에 세대를 아우르는 아웃리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윤주희 자매
(S브릿지, 29기 전도학교 수료)

시인과 하나님!

CGN 휴먼 다큐 ‘휴먼네컷’, 나태주 시인 출연



나태주 시인이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GN 휴먼다큐 ‘휴먼네컷’에서 확인할 수 있다.

CGN 휴먼 다큐멘터리 ‘휴먼네컷’에 나태주 시인이 출연한다. 휴먼네컷 나태주 시인 편에서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태주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시와 나옴으로 이웃들을 위로하는 일상을 담았다. 8월 1일(목)과 8일(목) CGN

유튜브 채널(오후 5시)과 TV 채널(오전 10시 20분, 기독교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CGN 휴먼 다큐멘터리 ‘휴먼네컷’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조명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비기독교인들과 나누

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4월 열린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이다. 지난달 공개한 CGN 휴먼 다큐멘터리 ‘휴먼네컷’ 1편에는 김용기 부회장(노루페인트), 2편에는 유튜브 ‘미남재형’이 출연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8월 11일 오후 2시 안산M센터, 8개국 37명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이 8월 11일(일) 오후 2시 안산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열린다.

유아세례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와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본부장), 성인세례 박종길 목사와 온누리M미션 예배 담당자 및 센터장(박씨마, 구자현, 네트라, 전홍렬, 김연경, 빌케, 아미, 노규석, 김만순, 최영조, 서영찬, 지반, 고원규, 임현주)이 집례한다.

올해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는 한국,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네팔,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8개국에서 온 이주민 37명이 세

례를 받는다(8월 1일 기준). 유아 1명, 아동 1명, 성인 35명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연합세례식을 열고 이주민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김포M센터에서는 8월 11일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여름 캠프 및 세례식을 한다. 이주민예배공동체(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몽골, 꿈땅) 성도, 봉사자, 목회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포M센터 세례식은 오민 목사(서초C공동체)와 서초C공동체 소속 장로, 김포M센터 목회자, 사역자, 장로 등이 집례한다. 이주민 9명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8월 1일 기준). / 홍하영 기자

빛을 나누는 학교!

2024 온누리 MK 캠프

2024 온누리 MK(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 학습 캠프 ‘빛을 나누는 학교’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렸다. 14개국 20개 사역지에서 온 MK 36명이 참가했다.

2024 온누리 MK 캠프 ‘빛을 나누는 학교’에서는 선배 MK 특강, 한국어, 과학, 미술 수업, 원예, 보자기 포장, 드론 체험 활동 등이 이어졌

다. MK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도왔다.

온누리 MK 학습 캠프 ‘빛을 나누는 학교’는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팀에서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0세에서 18세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의 자녀들이 대상이다.

/ 홍하영 기자

264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8월 30일부터 매주 금 온라인 강의

264기 결혼예비학교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주차별 강의가 2개씩 업로드된다. PDF 강의안도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8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264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너와 나, 다름의 축복’, ‘신혼, 재정의 첫걸음’ 등을 주제로 유수열 목사, 김숙경 소장, 황규복 목사, 김의수 센터장, 이범석, 이연숙 부부 강사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

9월 3일부터 매주 화 서빙고 지하 1층 성가대실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이 개강한다.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에서

는 ‘다학제팀의 의사소통’, ‘자연치유와 미술치유’, ‘영적돌봄의 변화와 전망’, ‘가정 호스피스’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9월 17일은 추석, 9월 24일은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로 인해 휴강한다.

계좌: 하나은행 573-910007-15004(예금주: 호스피스)

문의: 010-3412-7966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부 174기 두란노아버지학교 개강

본부 174기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개강한다. 오는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평택온누리교회와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9월 7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본부 174기 두란노아버지학교는 평택온누리교회와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연합으로 진행된다.

문의: 031-331-8196

본부 133기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33기 두란노어머니학교가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60명,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상단 QR코드를 찍으면 8월 첫째 주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를 확인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역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튀르키예는 2023년 2월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진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스켄데룬과 하타이 지역은 정부와 기관의 지원이 끊겨 아직도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마을을 이루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NGO 더멋진세상은 이스켄데룬 컨테이너 마을 주민 3,000명에게 쌀, 콩, 밀가루, 설탕, 소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박스를 지원했다.

김광동 대표는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재난당한 이웃들을 위한 섬김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홍하영 기자

부채탈출119, 신청자 상시 모집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2024 부채탈출119’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부채탈출119는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도와주는 부채상담사역이다.

재정 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james332023@gmail.com)로 제출하거나 구글 링크(QR참고)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하

면 된다. 가계재정상담신청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가계재정상담신청서에는 신청자 또는 추천자의 개인 정보, 상담 필요 분야(부채 및 신용관리, 결혼자금 준비, 목돈 마련, 저축, 주거자금 마련, 돈에 대한 심리상태 등), 부채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치유와 기름부음 스쿨’ 참가자 모집

‘치유와 기름부음 스쿨’이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홀에서 개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사역,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는 교역

자, 리더십, 성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의미, 중요성’ 등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이 이어진다. 문의: 010-7388-9900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305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사부 ● 일본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저지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nsa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권효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희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은혜 김재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용 김태관 김한규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 박성영 박성철 박전중
박영준 배행삼 배성우 배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식
신현민 조보라 송동주 송재호
안사뭇말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이윤재 유현미 유재미 유현우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유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현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성철 정영상
정현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록 조현수
진선미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하수 한중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정지훈
조은광 조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환 구해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전숙 김중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뉴엔은 峯峯峯
이민영 이상은 배승현 비 쉼
서영철 생애배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스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장광석 정육진 정요한 제인량
조영민 최정현 최정현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림 권예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태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현실 김홍주 김예남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남정 김홍미 나가노
마사토 오성민 오성민 문진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희
박의관 방예린 방진아 서예찬
서해진 손윤희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루택 양현모 윤경덕
이정민 이도일 이웅희 우승희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석무 윤준현 윤종연 이나단
이도일 이웅희 이미진 이민규
이선혜 이소라 이시하라 나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정민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창모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전미연 전미연
정상원 정성민 정영연 정은영
정장준 정영민 정민희 조슬기
조우현 조은식 조준기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황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환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강경선 강관근 강기호
김남식 김남일 김병철 김병태
김병훈 김갑섭 김익진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성목
김 완 김용성 김 완 김용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진 김종성
김종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재 노재환 노홍규
김형식 나상권 박석봉 박성근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홍실 문현기 박 공 박박익
박봉래 박상승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 박영배
박용국 박우형 박용현 박찬빈
박대성 박홍국 배 문 배남인
백승웅 백오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서현철
순한기 송만식 송영배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수권 신현봉
심상현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우현 양제수
임태진 오성연 우광범 우승우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준 유 형 윤기홍 윤성철
유지훈 윤석우 윤기환 윤성열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광현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덕 이상욱 이상길
이영세 이상철 이영경 이영하
이우곤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정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한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규영 정장태 정경우 정대용
정은영 정문규 정병규 정보민
정순봉 정영연 정영화 정재택
정재현 정영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수업 정진하 정파교
정희원 조호준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전영우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정우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준 한태준 한백진 한양희
한종태 한창적 한형식 함광식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병 홍태표 홍병식 홍중철
홍정석 홍해남 홍형욱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의 강은철 강창재 강창환
강태욱 고길범 고대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이헌규 권순현 권오섭 권오현
임상범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임호열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정재범 정영하 정문식 정영준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성준
정연식 정영구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윤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현진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규 조성태 주재환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환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아 최희관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정우 한왕식 한필규
함일선 함영철 하 경 하대행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우진 홍상원 홍성민 홍성룡
황성주 황유일 황성룡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봉 정광택 정병주 정상진
지성환 채수삼 최창길 홍순직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배대현 박자인
박형규 양오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중훈
추교범 함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진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계경
김정환 김희정 김 찬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해준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의 신수정 손찬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병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의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택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 부목사
김기홍 김병성 김상훈 김성영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원
김진우 김창식 김환진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준비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안성진 양진범 양영기 유윤상
유병중 유영순 이경호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우영 이정주 이영근 이병철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현
정동훈 조수정 조정호 최석서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성서
홍세만 홍 정 JoelKim Joe Lee

● 해외 온누리교회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택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 부목사
김기홍 김병성 김상훈 김성영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원
김진우 김창식 김환진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준비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안성진 양진범 양영기 유윤상
유병중 유영순 이경호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우영 이정주 이영근 이병철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현
정동훈 조수정 조정호 최석서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성서
홍세만 홍 정 JoelKim Joe Lee

광고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출판1부 편집 디자이너 1명
형태: 계약직(약 15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기간: 8월 8일(목)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
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 사용하세요.
현금은라인 안내
입금주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원: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소천

7/27(토) 양천 김귀수 성도 부친상, 최재림 집사 시부상
고 김봉주

7/28(주일) 경기A 최지연 성도 부친상 고 최병기

7/29(월) 강남A 최경선 성도 모친상 고 이옥란

7/30(화) 강남A 허경식 성도 부친상 고 허성규

7/31(수) 신용산 이철휘 집사 부친상 고 이보홍

8/2(금) 이촌 심도희 성도 부친상, 김성철 성도 빙부상
고 심종식

8/2(금) 찬양사역 유신원 성도 부친상, 이주호 집사 빙부상
고 유창영